

photo essay
포토에세이

꽃망을 터뜨린 매화, 동백, 버들강아지, 남도의 야생화 겨울 뚫고 색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봄의 전령사

추위와 찬바람을 이겨낸 '봄의 전령사'들이 저마다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옷으로 갈아입고 봄을 기다리고 있다.

겨울과 봄의 길목에서 추운 겨울을 견디어낸 남도의 들녘에 동백꽃과 매화, 청노루귀, 버들강아지, 복수초, 변산바람꽃 등이 꿈틀꿈틀 수줍게 피어났다.

가장 먼저 피어난 동백과 홍매화가 겨우내 움츠리고 지내던 사람들을 불러냈다. 직박구리 한마리는 홍매화의 향기에 취해 노래를 부른다.

또한 차디찬 눈 더미 사이로 수줍게 꽃봉오리를 피운 복수초 소식에 사진작가들을 설레게 한다.

여기에 '봄의 전령사'로 대표적인 버들강아지(갯버들)가 속살을 드러내고 '꽃 피는 봄'을 알리는 변산바람꽃도 남녘 야산에서 꽃망울을 터뜨렸다. 변산바람꽃은 바람꽃 종류 가운데 변산반도에서 처음 발견됐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나라 특산종으로 이른 봄에 길이 2~3cm가량의 흰색 또

는 분홍색의 꽃이 핀다

꽃말이름이 인쇄, 믿음, 신뢰인 야생화 청노루귀는 잎의 생김새가 노루의 귀를 닮아서 노루귀다. 꽃 피는 기간이 짧아 아차 하면 내년을 기다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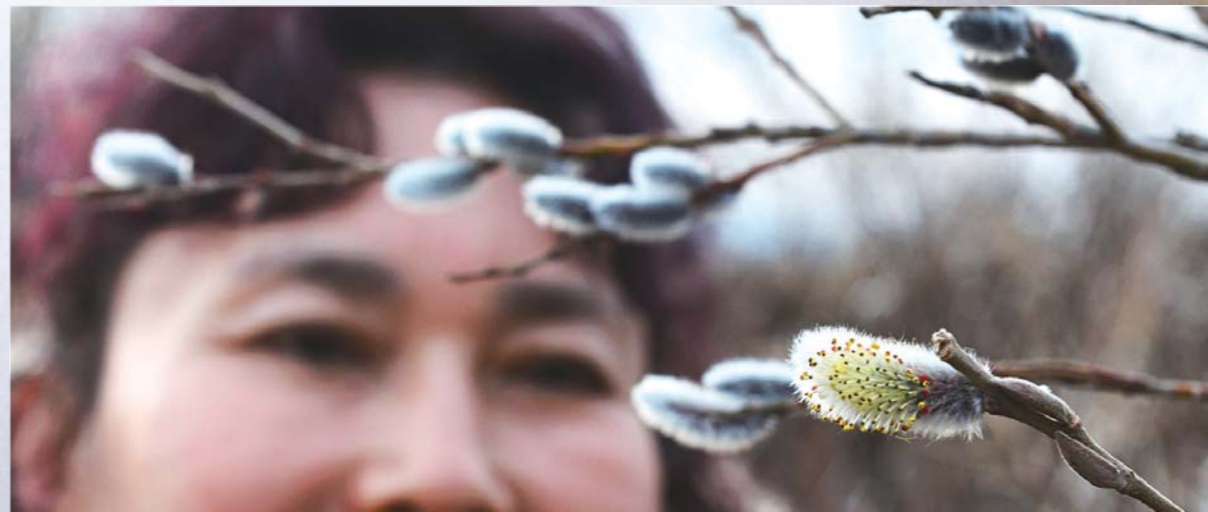
고개 떨구며 꼬부라진 할미꽃도 겨울의 끝자락에서 꽃을 피어냈다. 이처럼 예년보다 일찍 개화한 봄꽃 소식에 남도 지자체들은 꽃 축제를 앞당기고 있다.

대한민국 축제의 서막을 여는 '광양매화축제'는 역대 가장 빠른 시기인 내달 8일부터 백운산 자락의 섬진강변 매화 군락지에서 관광객을 맞는다.

노란 구름에 둘러싸인 듯한 구례산수유꽃축제와 해남팍팍매화축제도 봄 마중 준비에 분주하다.

추위라는 역경을 이겨내고 꽃망울을 드러낸 봄의 전령사들을 바라보며 옷장 속 봄옷에 눈길 한번 주길 바란다.

글·사진=임정욱기자 jo5605@srb.co.kr



속살을 드러낸 '버들강아지'



홍매화의 향기에 취해 노래부른 직박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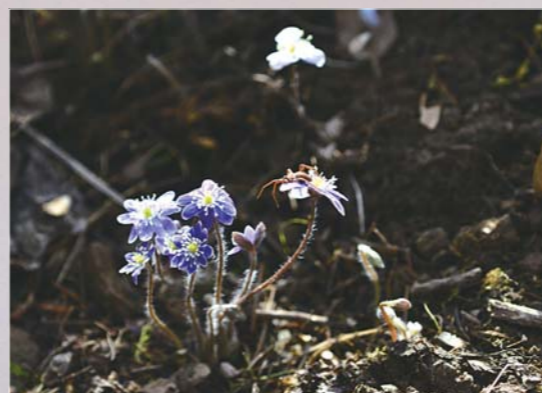
봄의 불을 밝히는 '동백'



눈 더미 사이로 수줍게 꽃봉오리를 피운 '복수초'



고개 떨구며 꼬부라진 할미꽃



잎의 생김새가 노루의 귀를 닮은 '청노루귀'



광주 최대 변화가! 최고 광고효과!
광주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전광판 광고 (신세계안과 옥탑)

<p>01 광주 최고 유동인구 밀집지역</p> <p>신세계백화점, U-Square, 광주종합버스터미널, e마트 등</p>	<p>02 광주 최대 광복대로에 위치</p> <p>20차선 차량 정체 극심 지역, 57개 버스노선 경유지(광주 최다)</p>
<p>03 무등일보, 뉴스스 뉴스와 생활정보 편성, 높은 주목도!</p>	<p>04 두 개 (무진대로, 죽봉대로) 광복대로에 노출되는 광고효과 X2</p>

1일 100회, 월 3,000회 노출!! (20초 광고 기준)

- ▶ 스크린 크기: 13.6m x 7.7m
- ▶ 해상도: LED풀컬러 국내 최고 화질
- ▶ 하루 18시간, 20구좌 상업 광고 노출
- ▶ 광고 노출 시점: 계약 즉시 가능

믿을 수 있는 그룹의 No.1 광고회사

SRB 미디어 그룹 **SRB에드** 문의 062) **510-4650**